Daishin 증권

2026년 04월 21일 화요일

Morning Meeting Brief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실적 기대와 협상 노이즈의 공존, 코스피 6,200 선 돌파

-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앞두고 신고가 경신
- 미국과 이란 협상 노이즈 지속, 지정학 불확실성 확대
- 실적 모멘텀 유효한 업종으로 순환매 전개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Global Strategy

[Global Daishin View] 2026 년 4 월 4 주차

- 美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의 상징성 주목. 향후 안도랠리 국면에서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5가지 요인
- 중국 증시, 4가지 투자 포인트 관심. 오라클, AI 컴퓨팅 수요의 공급 초과. 프로로지스, 안정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확인
- 이번 주 해외 투자 포커스: [신흥국전략] iShares MSCI China ETF(MCHI), [미국주식] 오라클(ORCL), [글로벌리츠] 프로로지스(PLD)

글로벌전략 문남중, 신흥국전략 문건우, 미국주식 서영재, 글로벌리츠 김다은

산업 및 종목 분석

[1Q26 Preview] LS: 이제 지주회사 보다는 사업 회사로 재평가해야 할 때 (목표주가 53.3% 상향)

- 목표주가 460,000원으로 상향(기존 대비 +53%)
- 26년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본격화, 자사주 11% 소각, 중복상장 금지
- 1Q26 영업이익 3,780억원(+24% YoY), 2026년 1.57조원(+41%) 예상

허민호. minho.hur@daishin.com

[1Q26 Preview] 명신산업: 기회와 리스크의 공존

- 1Q26 주요 고객사 중국 생산 회복/철강&환율 안정화로 이익체력 회복
- 주가의 키는 1) 로보택시 생산 본격화, 2) Non-Auto 신제품 수주여부
- 모회사의 실적 부진에 따른 자금조달 추이 또한 주목할 필요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1Q26 Preview] 신세계인터내셔날: 고마진 사업부는 고성장하고 적자 사업부는 적자 줄고

- 주수익원인 해외 패션과 수입 화장품 고성장
- 국내 패션도 실질적으로 (+) 성장 전환, 제조 코스메틱도 적자 축소 전망
- 실적 개선과 함께 성장성 부각되며 valuation 회복될 듯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1Q26 Preview] 한섬: 매출 성장률과 GPM 이 동반 상승: 영업 레버리지 구간

- 26년 1분기 정상가 판매율 상승으로 영업이익 급증 전망
- 1분기부터 매출 고성장, GPM도 상승
- 실적 눈높이 높여도 되는 상황. 26년은 3년만에 부진에서 탈출하는 첫 해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Industry Report] 스몰캡: 호르무즈 이후, LNG 인프라의 시대

- 호르무즈 리스크로 재편화되는 에너지 시장
- 수 년간의 CAPEX 시장에 돌입한 LNG 시장
- Top Pick: 하이록코리아. 관심종목: 태광, 성광벤드

박장욱. Jangwook.Park@daishin.com

[Isse&News] 하이록코리아: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든 성장 가속 구간

- 26년 매출 성장은 해양과 반도체가 견인할 것으로 기대함
- 상대적으로 인허가가 쉬운 FLNG의 FID 가속화 전망
- 에너지 지형 변화로 실적 성장과 멀티플 확장이 가능할 것

박장욱. Jangwook.Park@daishin.com

[Company Report] 쎄크: 작지만 기술력있는 멀티플 확장형 회사

- 기술특례상장 소부장 기업으로 반도체, 배터리 방산향 검사장비 제조
- HBM 성장 + 핵심부품 내재화는 멀티플 확장의 핵심 요소
- 2026년은 외형성장 바탕으로 구조적 흑자 전환의 분기점이 될 전망

김아영. ahyoung.kim@daishin.com

[1Q26 Review] 디오, 숫자로 확인되는 해외 성장과 생산성 개선

- 1Q26, 해외 성장 기반 실적 개선 본격화
- 공장 효율화와 생산 체질 개선 통한 구조적 개선 확대
- 2026, 해외 성장과 공장 효율화로 재도약 기대

김아영. ahyoung.kim@daishin.com

Strategy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실적 기대와 협상 노이즈의 공존, 코스피 6,200선 돌파

-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앞두고 신고가 경신
- 미국과 이란 협상 노이즈 지속, 지정학 불확실성 확대
- 실적 모멘텀 유효한 업종으로 순환매 전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앞두고 신고가 경신

이번 주 23일 예정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모멘텀 강화.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8조원 수준으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 형성되었던 40조원 대비 컨센서스가 소폭 낮아진 상황. 다만, 일회성 비용을 반영한 영향으로 판단되며 실적 기대감이 우세한 모습

현재 SK하이닉스의 2026, 27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상향 조정 중. 2026년 영업이익은 3개월 기준 199조원에서 1개월 기준 229조원으로 상승. 2027년 영업이익은 3개월 기준 246조원에서 1개월 기준 297조원으로 상승. 이는 이익 추정치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

SK하이닉스(+3.4%)는 장 중 신고가를 경신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SK스퀘어(+2.8%)도 실적 기대감 유입되며 나란히 강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10.8%), 주성엔지니어링(+30.0%), 하나마이크론(+7.4%)

미국과 이란 협상 노이즈 지속, 지정학 불확실성 확대

미국과 이란의 협상 과정에서 노이즈가 지속되는 모습. 주말 사이 이란은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합의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미국의 역봉쇄 조치를 비판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기로 결정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이어지는 상황. 미국 대표단은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불발될 경우 이란 인프라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언급.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이란 화물선에 대한 발포, 나포를 주장하며 지정학 리스크 잔존

장 마감 후 이란 외교부는 이란이 미국과의 2차 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불확실성 확대

실적 모멘텀 유효한 업종으로 순환매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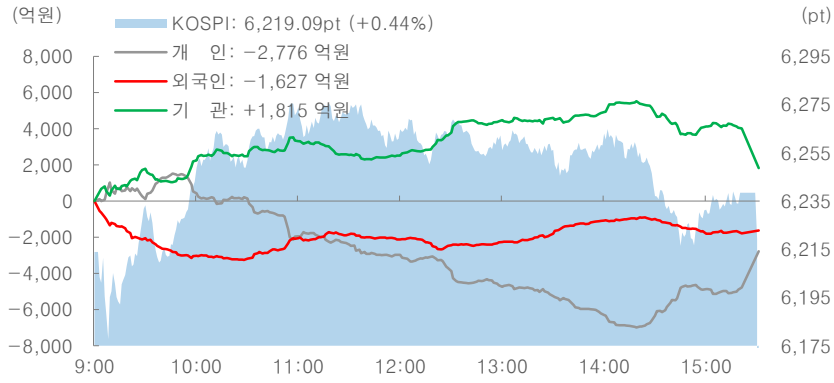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과 ESS 모멘텀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

2차전지: 삼성SDI(+4.9%), LG에너지솔루션(+2.6%), 에코프로머티(+4.6%)

중동 재건 수요 기대감과 원전 모멘텀으로 강세를 보였으나, 차익매물 출회

건설: 대우건설(-2.1%), 현대건설(-1.5%), GS건설(-2.4%)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Weekly

THE GLOBAL

Global Daishin View

글로벌전략 문남중
신흥국전략 문건우
미국주식 서영재
글로벌리츠 김다은

2026년 4월 4주차

- 美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의 상징성 주목. 향후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5가지 요인
- 오라클, AI 컴퓨팅 수요의 공급 초과. 프로로지스, 안정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확

[글로벌전략] 굿바이! 전쟁. 美 증시가 견인하는 안도랠리 국면

종전 낙관론이 부각되면서 미국 증시(S&P500)는 4.15일 이후 역사적 사상 최고치 경신. 전세계 증시 향방의 윤곽을 전적으로 좌우하는 미국 증시의 상징성을 주목할 시점.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요인들은 1) 경기 확장 국면(26.2월 기준, NBER), 2) 26.1/4분기 기업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S&P500 12개월 선행 EPS 증가율 +13.0%), 3) 낮아진 주가수익비율(S&P500 12개월 선행 PE 20.4배. 5년 평균 19.9배 수렴), 4)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임명 시), 완화적 통화정책 무게, 5) 전쟁 종전 시, 연말로 갈수록 유가 하락 및 단기 기대인플레이션 안정 기대

[신흥국전략] iShares MSCI China ETF(MCHI): 1/4분기 경제성장률 호조, 중동 불확실성 완화에 반등 기대

16일 중국 1/4분기 경제성장률은 5.0%(YoY 이하)로 시장 예상치 4.8% 상회. 3월 산업생산은 5.7%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 5.3% 상회. 3월 소매판매는 1.7%, 3월 누적고정자산투자는 1.7% 상승하며 각각 시장 예상치 2.3/2.0% 하회했으나 경제 지표 반등 확인. 1) 21일 미국-이란 휴전 마감일을 앞두고 종전 기대감 지속. 2) 4월 중국 정치국 회의 경기 부양 정책 발표 예상. 3) CSI300 지수의 12개월 선행 P/E는 12.9배로 5년 평균 13.4배를 하회하여 주요국 증시 중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만큼 비중확대 제시

[미국주식] 오라클(ORCL): AI 컴퓨팅 수요 지속 증대. 오라클은 이에 대응해 데이터센터 건설 가속화

엔비디아 H100의 시간당 임대료 상승하는 국면. 컴퓨팅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음을 시사. 오라클은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해 금융사들을 통해 380억 달러의 자금 조달 추진.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해당 대출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 오라클의 자금 조달 우려를 낮추는 요인. 또한, 오라클은 블룸 에너지와 전력 공급 계약을 확대. 1.2GW 규모의 용량을 2027년까지 설치 완료해 총 2.8GW의 전력을 조달할 계획

[글로벌리츠] 프로로지스(PLD): 안정적인 턴어라운드 개선세 확인

26.1/4분기 매출액 23억 달러(+YoY 7.4%), 주당 Core FFO (+YoY 5.6%) 기록하며 컨센서스 상회. 6.4만 sqft 역대 최대 임대실적 + 시장 임대료 반등 → 물류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 통과를 확인. 1/4분기 중 13억달러 규모의 데이

Earnings Preview

LS (006260)

이제 지주회사 보다는 사업회사로 재평가해야 할 때

- 목표주가 460,000원으로 상향(기존 대비 +53%)
- 26년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본격화, 자사주 11% 소각, 중복상장 금지
- 1Q26 영업이익 3,780억원(+24% YoY), 2026년 1.57조원(+41%)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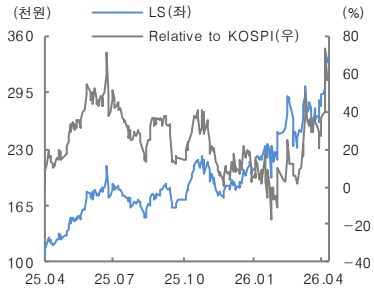
허민호

minho.hur@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460,000 상향
현재주가 (26.04.20)	332,000 유틸리티업종

KOSPI	6219.09
시가총액	10,358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31%
자본금(보통주)	159십억원
52주 최고/최저	343,500원 / 118,7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490억원
외국인지분율	19.30%
주요주주	구자열 외 44 인 33.11% 국민연금공단 12.75%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9.4	49.5	68.4	171.7
상대수익률	1.7	17.5	3.3	8.5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460,000원으로 상향(기존 대비 +53%)

목표주가를 460,000원으로 기존 대비 53% 상향(목표주가는 적정 순자산가치(NAV) 28.4조원 대비 50% 할인). 1) 2026년부터 주요 비상장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본격화 및 중장기 성장성 제고, 적정가치 재평가 기대, 2) 3차 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자사주 11% 소각 기대,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등으로 자회사의 적정 가치 할인율 축소 예상.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적정 순자산가치에 수렴할 것으로 기대

LS ELECTRIC(상장): AIDC향 배전반(배전기기), 온사이트 발전 관련 중압 전력기기, HVAC/HVDC 변압기 등의 매출 및 수주 확대 등으로 실적 성장 본격화 예상

LS전선(비상장): 지중/해저케이블, 부스덕트 매출 성장, 수주 확대 본격화 등으로 고마진 제품 매출비중 확대 및 수익성 개선 예상. 지중케이블은 가공선로 대비 4~10배 비싸지만, AIDC(AI 데이터센터)로 초고압(110~230kV 이상) 전력망 연결,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AIDC의 빠른 전력 공급을 위한 높은 전력망 요금 지불의지, 기후변화 심화 대응을 위한 배전망의 지중화 등으로 투자 확대 기대(미국의 지중화율은 배전망 20%, 송전망 1% 미만으로 독일의 각각 80%, 10% 대비 부족). 유럽 및 한국, 대만 등의 해저케이블 시장 확대 예상. AIDC의 전력밀도 급증 등에 따른 내부 배전시스템 고도화, 직류 배전 아키텍처 채택 등으로 부스덕트(부스웨이) 수요 확대 예상.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동사의 수주 확대 기대

LS MnM(비상장): 금, 은, 황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산물사업 실적 개선으로 전기동 제련사업 적자 확대를 만회 가능, 2026년말 상업 가동 예정인 2차전지 전구체용 황산니켈/황산코발 사업,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 사업 인수 등으로 성장성 제고

LS 아이앤디(비상장): 변압기 및 하이브리드/전기차용 특수권선 매출 성장, 2H26 미국 BEAD 프로그램 본격화에 따른 광케이블 매출 확대 등으로 실적 개선 기대

1Q26 영업이익 3,780억원(+24% YoY), 2026년 1.49조원(+41%) 예상

1Q26 매출액 8.52조원(+23%, 이하 YoY), 영업이익 3,780억원(+24%) 예상. 2026년 매출액 37.15조원(+17%), 영업이익 1.49조원(+41%) 전망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27,545	31,870	37,151	40,432	44,332
영업이익	1,073	1,053	1,491	1,872	2,331
세전순이익	566	682	1,136	1,507	1,962
총당기순이익	392	485	859	1,142	1,488
지배지분순이익	237	271	500	670	890
EPS	7,371	8,458	15,977	21,487	28,520
PER	12.8	23.6	20.8	15.5	11.6
BPS	142,604	156,261	167,054	186,702	212,943
PBR	0.7	1.3	2.0	1.8	1.6
ROE	5.1	5.6	9.8	12.1	14.3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L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Earnings Preview

명신산업 (009900)

기회와 리스크의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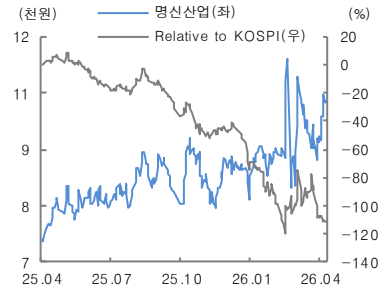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박서영RA
seoyoung.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3,000 상향
현재주가 (26.04.20)	10,570 자동차업종

KOSPI	6219.09
시가총액	555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2%
자본금(보통주)	26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1,500원 / 7,71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34억원
외국인지분율	7.17%
주요주주	엠에스오토텍 외 1 인 45.45%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0.9	12.7	10.8	35.7
상대수익률	-6.2	-11.5	-32.0	-45.8



- 1Q26 주요 고객사 중국 생산 회복/철강&환율 안정화로 이익체력 회복
- 주가의 키는 1) 로보택시 생산 본격화, 2) Non-Auto 신제품 수주여부
- 모회사의 실적 부진에 따른 자금조달 추이 또한 주목할 필요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13,000원 상향(+18.2%)

목표주가 1.3만원은 2026년 평균 EPS 1,539원에 목표배수 8.4배 적용. 실적 저점 통과와 한국 증시 리레이팅에 따른 밸류 상승 반영하여 목표주가 상향. '26년 주요 고객사의 북미 생산 감소와 모회사(MS오토텍) 실적부진 지속되고 있으나, 1) 북미 EV 선도 고객사의 신제품 수주 기대, 2) 중국 생산 개선, 3) 브라질 법인 연결 손익 반영, 4) 현대기아 물량 증가, 5) 밸류 부담 제한적이라는 점 감안 시, 신제품 수주에 따른 주가 리레이팅 가능할 것이라 판단. 1H26 철강가 변동/모회사 자금 조달 불확실성 해소 => 2H26 로보택시 본격 생산/신제품 수주/북미 생산 회복에 따른 주가 리레이팅 예상

1Q26 매출 4,210억(YoY +17%, 이하 YoY), OP 314억(+4%), OPM 7.5% 예상

1) 브라질 법인 연결 인식(YoY 매출 +400억/OP 20억 추정), 2) 철강가/환율 안정세, 3) 북미 BEV 선도 고객사의 중국 생산 반등(YoY +29% 추정) 효과로 이익체력 회복 예상. 주요 EV 고객사의 북미 생산 부진(YoY -15% 추정)으로 YoY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것이나, QoQ 1) 북미 회계처리 일회성 기저(약 40억원), 2) 철강가 반등에 따른 외형 효과 감안 시, 실적 부담은 제한적. 2026년 1) 미국 관세 부담 완화, 2) 브라질 법인 연결 인식 효과, 3) 철강가/환율 안정화 효과로 연간 OP 1,194억/OPM 7%대 회복 가능할 것으로 예상

공존하는 기회와 리스크

2026년 이익체력 정상화 예상하는 가운데, 주가 리레이팅의 키는 북미 선도 BEV 고객사의 1) 로보택시 생산 본격화, 2) Non-Auto 신제품 수주 여부가 될 것. 다만, 모회사(엠에스오토텍)의 실적 부진 지속되고 있어 관련한 자금 조달 추이 또한 주목할 필요

(단위: 십억원, %)

구분	1Q25	4Q25	1Q26(F)					2Q26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360	417	393	421	17.1	0.9	380	453	13.7	7.7
영업이익	30	10	29	31	4.4	199.3	33	32	25.0	2.3
순이익	17	5	24	21	27.4	342.5	29	22	57.3	2.6

자료: 명신산업,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1,574	1,619	1,673	1,780	1,861
영업이익	148	103	119	139	148
세전순이익	169	91	108	122	127
총당기순이익	129	68	81	92	95
지배지분순이익	129	68	81	92	95
EPS	2,460	1,302	1,539	1,748	1,819
PER	4.2	6.9	6.3	5.5	5.3
BPS	13,293	14,406	15,912	17,631	19,426
PBR	0.8	0.6	0.7	0.6	0.5
ROE	20.9	9.4	10.1	10.4	9.8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자료: 명신산업,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Earnings P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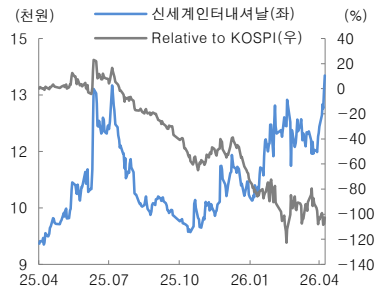
신세계 인터내셔날 (031430)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홍성원 RA
seongwon.hong@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0,000 상향
현재주가 (26.04.17)	13,970 섬유의복업종

KOSPI	6191.92
시가총액	489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1%
자본금(보통주)	35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3,970원 / 9,3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4억원
외국인지분율	4.86%
주요주주	신세계 외 1 인 55.16% 네이버 6.99%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9.6	28.0	42.3	50.2
상대수익률	-0.2	0.1	-13.9	-40.1



고마진 사업부는 고성장하고 적자 사업부는 적자 줄고

- 주수익원인 해외 패션과 수입 화장품 고성장
- 국내 패션도 실질적으로 (+) 성장 전환, 제조 코스메틱도 적자 축소 전망
- 실적 개선과 함께 성장성 부각되며 valuation 회복될 듯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20,000원으로 상향(+18%)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20,000원(12개월 FWD P/E 12배)으로 상향. 목표주가 상향은 실적 상향 조정에 기인

적자 혹은 저마진 사업부로 인해 마진 개선에 대한 불투명성은 지난해 말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음이 확인. 2026년은 매출이 성장할 때마다 영업 레버리지가 커지는 시기. 패션과 코스메틱 브랜드 사업 다변화에 대한 valuation 프리미엄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

1Q26 Preview: 턴어라운드 본격 시작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022억원(-1%, yoy), 134억원(+188%, yoy)으로 양호한 실적 전망. 중단 사업인 JAJU 실적을 고려한 실질 매출 성장률은 18%로 전망되는 등 매우 양호한 성장세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소비심리 회복으로 주력 수익 사업부인 해외 패션 매출과 수입 코스메틱 매출 고성장(각각 yoy +38%, +20% 성장 파악). 또한 적자 사업부인 국내 패션 매출도 브랜드 정리 영향을 감안하면 매출 성장세가 (+)로 돌아섰고 투자가 많아 지난 해 적자를 기록했던 제조 코스메틱 부문은 해외 현지법인 비용 절감으로 적자 축소 파악. 이렇듯 전 사업부가 손익 개선에 고르게 기여한 것으로 파악. 지난 해 1분기 47억원에 불과했던 영업이익은 올해 1분기 3배에 가까운 134억원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실적 개선 추세 나타날 것으로 추정

(단위: 십억원, %)

구분	1Q25	4Q25	1Q26(F)					2Q26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304	187	275	302	-0.7	61.8	292	286	-7.2	-5.2
영업이익	5	-12	6	13	188.1	흑전	10	9	흑전	-36.1
순이익	5	2	8	14	217.2	824.0	10	11	17,066.8	-25.1

주: 24-25년 중단 사업 이익 포함, 자료: 신세계인터내셔날,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1,074	1,110	1,269	1,355	1,447
영업이익	7	-11	49	62	67
세전순이익	13	-6	60	73	91
총당기순이익	33	4	55	65	79
지배지분순이익	33	4	55	65	82
EPS	910	121	1,562	1,855	2,333
PER	11.1	90.7	7.9	6.7	5.3
BPS	23,571	23,595	24,992	26,494	28,435
PBR	0.4	0.5	0.6	0.5	0.5
ROE	3.8	0.5	6.4	7.2	8.5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24-25년 중단 사업 이익 포함
자료: 신세계인터내셔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Earnings P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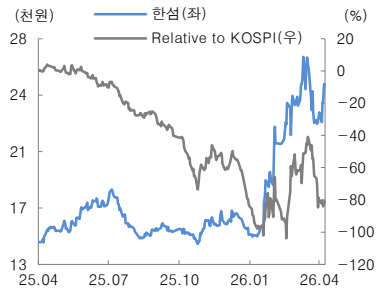
한섬 (020000)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홍성원 RA
seongwon.hong@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35,000 유지
현재주가 (26.04.17)	24,900 섬유의복업종

KOSPI	6191.92
시가총액	559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2%
자본금(보통주)	12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6,800원 / 14,3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7억원
외국인지분율	20.94%
주요주주	현대홈쇼핑 40.50% 국민연금공단 9.55%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0.2	66.7	65.6	67.8
상대수익률	-9.1	30.3	0.2	-33.1



매출 성장률과 GPM이 동반 상승 : 영업 레버리지 구간

- 26년 1분기 정상가 판매율 상승으로 영업이익 급증 전망
- 1분기부터 매출 고성장, GPM도 상승
- 실적 눈높이 높여도 되는 상황. 26년은 3년만에 부진에서 탈출하는 첫 해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35,000원 유지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35,000원(12개월 FWD 예상 P/E 8배) 유지

지난 해 말부터 국내 주요 산업들의 실적 개선, 이에 따른 주식시장 호황 등 자산 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동사 실적도 크게 개선되기 시작. 브랜드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 매출 성장률, 2) GPM 유지/상승 여부임. 동사는 23년부터 내수 소비 부진으로 쌓이기 시작한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할인 판매를 하면서 매출이 늘지 않아 매출 감소와 GPM 하락의 악순환으로 손익이 크게 훼손. 그러나 4Q25부터 국내 소비 회복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그동안 쌓였던 과년차 재고가 다 소진되며 지금 상황은 매출 성장률과 GPM이 같이 상승하는 초기 단계임. 2027년까지 이러한 국면 지속으로 손익이 크게 개선될 전망. 최근 높은 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 상태

1Q26 Preview: 영업이익 급증 구간 진입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154억원(+9%, yoy), 341억원(+56%, yoy)으로 호실적 전망.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백화점 카테고리별 매출 성장률에서 여성복과 남성복이 25년 4분기부터 성장률이 회복되면서 1분기 평균 1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임에 따라 동사 브랜드도 주력 채널인 백화점에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임. 백화점 정상 채널에서 구입하는 고객이 증가하면서 매출에서 약 35% 이상 차지하는 아울렛과 온라인 성장률은 백화점 성장률 보다 낮아 전체 성장률은 9%를 기록할 전망. 백화점 정상가 판매율 상승에 따라 GPM이 크게 개선되며 영업 레버리지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함에 따라 이익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

(단위: 십억원, %)

구분	1Q25	4Q25	1Q26(F)					2Q26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380	464	420	415	9.2	-10.4	408	368	8.8	-11.4
영업이익	22	27	34	34	56.4	25.3	34	13	1,697.0	-61.1
순이익	18	24	26	27	45.3	12.9	27	11	342.4	-59.4

자료: 한섬,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1,485	1,492	1,626	1,788	2,225
영업이익	63	52	101	124	249
세전순이익	57	56	105	130	255
총당기순이익	43	46	80	99	194
지배지분순이익	45	46	80	99	194
EPS	1,894	2,061	3,667	4,597	9,021
PER	7.8	7.8	6.7	5.4	2.7
BPS	59,656	64,033	68,911	73,828	82,167
PBR	0.2	0.2	0.4	0.3	0.3
ROE	3.2	3.3	5.4	6.4	11.6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한섬,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Industry Report

피팅산업

박장욱 Jangwook.park@daishin.com

투자의견

Overweight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하이록코리아	N.R	N.R
태광	N.R	N.R
성광벤드	N.R	N.R

호르무즈 이후, LNG 인프라의 시대

- 호르무즈 리스크로 재편화되는 에너지 시장
- 수 년간의 CAPEX 시장에 돌입한 LNG 시장
- Top pick: 하이록코리아. 관심종목: 태광, 성광벤드

호르무즈 리스크로 재편화되는 에너지 시장

미국–이란 간 분쟁 장기화로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구조화되는 가운데, BAPCO와 아람코 라스타누 등 중동 지역 주요 가스 및 원유 정제 및 수출 인프라 일부가 타격을 입으며 공급 차질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우드맥킨지에 따르면, 지금 당장 전쟁이 종전되더라도 수주 내 회복 가능한 생산량은 기존 대비 30 ~ 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40일 이상 생산을 중단함에 따라 저류층 손상 및 생산성 저하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제한적인 생산 회복은 단순한 단기 공급 차질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공급 구조 자체의 재편을 의미한다. 기존 중동 중심의 공급망이 단기간 내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주요 에너지 기업들과 수입국들은 구조적인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설비 투자 확대에 나서게 될 것이다.

수 년간의 CAPEX 시장에 돌입한 LNG 시장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제한된 생산 회복과 높은 가격 환경이 유지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신규 LNG 액화 설비, 저장 인프라, 운송 설비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경기 순환적 투자가 아닌, 에너지 안보를 기반으로 한 구조적 투자 사이클에 진입한 것으로 그 기간은 최소 수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K–에너지 인프라 업체들은 이전대비 높아진 실적 수준을 상당 기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호르무즈 사태 이후, 이벤트성으로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 있어, 종전이 된다면 조정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인프라 전반에 대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한다.

Top Pick: 하이록코리아. 관심종목: 태광, 성광벤드

Top pick으로는 조선 및 해양플랜트 매출 비중이 25%에 달하는 하이록코리아를 제시한다. 동사는 25% ~ 30%에 달하는 견조한 영업이익률에도 매출 성장 스토리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21년 이후, 7배 수준의 P/E를 부여받아왔다. Delfin LNG, Argentina LNG Phase 2, Coral Norte FLNG 등 주요 FLNG 프로젝트의 FID 가속화와 정유·화학 플랜트 CAPEX 확대를 감안할 때, 실적 성장 가시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동사의 26년 평균 P/E는 8배로 과거평균 P/E 10배와 비교해서 실적 및 멀티플 모두 상향 여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관심 종목으로는 대형 용접용 피팅을 제조하는 태광 및 성관벤드를 제시한다.

Issue & News

하이록코리아 (013030)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든 성장 가속 구간

- 26년 매출 성장은 해양과 반도체가 견인할 것으로 기대함
- 상대적으로 인허가가 쉬운 FLNG의 FID 가속화 전망
- 에너지 지형 변화로 실적 성장과 멀티플 확장이 가능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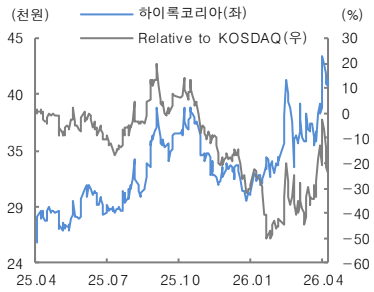
박장욱

jangwook.park@daishin.com

투자의견	N.R
6개월 목표주가	N.R
현재주가 (26.04.20)	39,650
	스몰캡업종

KOSDAQ	1170.04
시가총액	4,831억원
시가총액비중	0.10%
자본금(보통주)	68억원
52주 최고/최저	43,400원 / 27,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6억원
외국인지분율	28.60%
주요주주	문휴건 외 7 인 39.86% FIDELITY MANAGEMENT & RESEARCH COMPANY LLC 외 8 인 10.44%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6.1	29.5	12.0	42.3
상대수익률	12.8	5.7	-17.7	-13.4



해양과 반도체가 이끌 26년 매출 성장

26년 매출액 2,407억원 (+yoy 5.1%), 영업이익 668억원 (+yoy 13.3%)를 전망함. 26년 해양 314억원(+yoy 40.2%), 반도체 267억원(+yoy 38.3%)로 고성장이 예상되며, 이번 호르무즈 사태로 인한 FLNG 시장 수혜와 함께 AI 반도체 투자 확대에 따른 설비 수요 증가가 반영될 것으로 판단함

인허가가 상대적으로 쉬운 FLNG의 FID 가속화 전망

FLNG는 육상 LNG 수출 터미널과 비교해 비교적 인허가 절차가 간소하고, 추가적인 가스 파이프라인 구축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음. 특히, 이번 이란-미국 전쟁은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호루무즈 지역 가스전의 생산 중단(셧인) 영향으로 상당기간 절대적인 공급 부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FLNG 중심의 프로젝트 FID 가속화 및 착공 시점 단축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함

인프라 CAPEX 사이클 진입으로 실적 성장과 멀티플 확장이 가능할 것

동사의 2026년 예상 PER은 8배로 21년 이후 평균 PER 7배 수준에 위치함. 동사의 역사적 평균 PER은 10배 수준으로 21년 이후 25% 이상의 견조한 영업이익률에도 뚜렷한 성장스토리의 부재로 역사적 평균 대비 할인된 PER로 거래되어 왔음. 최근 호르무즈 사태로 에너지 관련 업체들의 주가는 이벤트성 상승이 일부 반영된 바 있어, 전쟁의 종료시 단기적인 주가 조정 가능성은 존재함. 다만, 중동 지역 재건 수요와 FLNG 등 대안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함. 동사는 구조적인 실적 개선과 함께 멀티플 확장이 가능한 구간에 위치함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억원, 원 ,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1,905	2,146	2,407	2,663	2,956
영업이익	501	589	668	732	834
세전순이익	631	657	744	816	838
총당기순이익	480	508	576	631	648
지배지분순이익	475	503	570	624	610
EPS	3,718	4,141	4,843	5,305	5,187
PER	6.8	7.4	8.0	7.3	7.5
BPS	33,784	37,411	42,145	46,148	50,040
PBR	0.7	0.8	1.0	0.9	0.8
ROE	11.4	11.4	12.0	12.0	10.8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하이록코리아,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any Report ★★★★☆

쎄크 (081180)

작지만 기술력 있는 멀티플 확장형 회사

- 기술특례상장 소부장기업으로 반도체, 배터리, 방산향 검사장비 제조
- HBM 성장 + 핵심부품 내재화는 멀티플 확장의 핵심 요소
- 2026년은 외형성장 바탕으로 구조적 흑자 전환의 분기점 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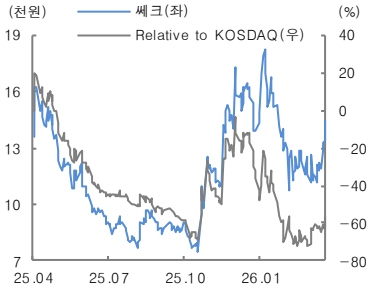
김아영

ahyoung.kim@daishin.com

투자의견	N/R
6개월 목표주가	N/R
현재주가 (26.04.17)	14,850
	스몰캡업종

KOSDAQ	1174.85
시가총액	1,311억원
시가총액비중	0.03%
자본금(보통주)	21억원
52주 최고/최저	18,300원 / 7,62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25억원
외국인지분율	6.34%
주요주주	김종현 외 11 인 27.9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2.3	-7.7	66.9	0.0
상대수익률	9.1	-24.7	22.6	0.0



전자빔 원천기술 기반 산업용 검사장비 전문 기업

쎄크는 2025년 4월 코스닥에 기술특례상장한 전자빔 기반 검사장비 전문 기업. 산업용 전자빔 기술을 바탕으로 X-ray Tube(핵심 부품), 반도체/배터리용 X-ray 검사장비, 방산용 LINAC(선형가속기), Tabletop SEM 등을 자체 개발, 생산. 2025년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은 반도체 36%, 배터리 24%, 방산 23%, 기타 17%로 과거 반도체 중심에서 다변화 중. 주요 고객사는 글로벌 메모리사, 반도체 후공정 업체, 배터리 제조사 등이며 방산 고객군으로 다변화

HBM 검사 수요 확대와 X-ray Tube 국산화 경쟁력으로 재평가 기대

1) HBM 검사장비 시장 진입 본격화: HBM 적층 구조 특성상 내부 결함 수요가 필수로 기존 수동 검사에서 인라인 자동화 검사로 빠르게 전환 중. 2026년 4월 마이크론향 수동 검사장비 공급 경험을 기반으로 인라인 장비 개발을 완료했으며, 양산 채택 시 장비 단가와 반복 수주 규모가 크게 상승 기대

2) X-ray Tube 자체 생산 기업으로서의 희소성: 국내 최초의 산업용 X-ray Tube 국산화 기업. 원가 절감, 고객 맞춤형 설계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구조적 강점을 지니며, 부품 교체, AS 매출로의 중장기 수익성 개선도 기대. 전자빔 원천 기술을 활용한 의료, 보안, 유리기판 가공 등 신규 시장 확장 가능

2026년은 외형성장 바탕으로 구조적 흑자 전환의 분기점 될 전망

2026년 매출액은 707억원(YoY +19.4%), 영업이익은 27억원(흑자전환)을 전망하며 이는 2025년 대비 외형성장과 동시에 손익 개선이 동반. 반도체 부문은 HBM 및 SMT 검사장비 확대, 배터리는 글로벌 고객사 증설 효과 반영에 따른 회복, 방산은 LINAC 반복 수주 효과로 외형성장 기대. 2026년은 단순 장비주에서 작지만 기술력 있는 멀티플 확장형 기업으로의 재평가 기대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억원, 원, %)

	2023A	2024A	2025A	2026F	2027F
매출액	504	539	592	707	1,120
영업이익	2	13	-31	27	109
세전순이익	-69	20	-38	21	87
총당기순이익	-69	21	-38	21	87
지배지분순이익	-69	21	-38	21	87
EPS	-1,114	321	-450	241	988
PER	NA	0.0	N/A	60.3	14.7
BPS	-2,117	3,192	4,011	4,249	5,237
PBR	-6.9	4.5	4.0	3.4	2.8
ROE	72.6	56.0	-10.7	5.7	18.9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쎄크,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any Report ★★★☆☆

디오
(0398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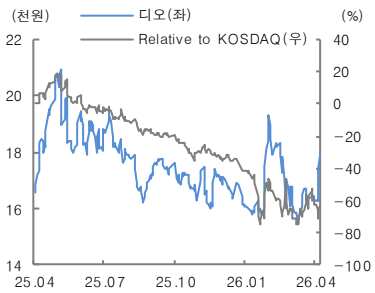
김아영

ahyoung.kim@daishin.com

투자의견	N/R
6개월 목표주가	N/R
현재주가 (26.04.17)	17,680
	제약업종

KOSDAQ	1174.85
시가총액	2,372억원
시가총액비중	0.05%
자본금(보통주)	79억원
52주 최고/최저	20,950원 / 15,47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7억원
외국인지분율	14.87%
주요주주	디오홀딩스 외 3 인 27.25% Kabouter Management, LLC 외 3 인 5.90%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3.0	12.5	6.2	-2.2
상대수익률	9.8	-8.2	-22.0	-40.5



디오, 숫자로 확인되는 해외 성장과 생산성 개선

- 1Q26, 해외 성장 기반 실적 개선 본격화
- 공장 효율화와 생산 체질 개선 통한 구조적 개선 확대
- 2026, 해외 성장과 공장효율화로 재도약 기대

1Q26 리뷰: 해외 비중 확대가 이익 개선으로 연결

1Q26 매출액은 413억원(YoY +15.4%), 영업이익은 41억원(YoY +173.2%)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됨. 국내 매출은 71억원(YoY +4.2%)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핵심은 해외 매출 확대로 343억원(YoY +18.0%) 기록. 중국은 교육, 마케팅 강화로 견조한 성장세 유지, 인도와 아시아 지역도 고른 성장세. 특히, 유럽은 포르투갈의 DSO 공급 확대, 러시아 판매 증가, 튀르키예 학술 마케팅 효과가 동시에 반영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전반적인 매출 증가와 비용 효율화가 맞물리며 영업이익률도 10%로 두자릿수까지 회복

공장 효율화와 생산 체질 개선 진행 중

동사의 변화는 영업 뿐만 아니라 생산 현장에서도 확인 가능함. 2, 3층 공사 이후 생산 면적을 1,793㎡에서 2,252㎡로 26% 확대했으며, 향후 생산 능력은 연간 550만 세트에서 1,040만 세트까지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동시에 생산 리드타임은 38% 단축, 시간당 인당 생산성은 15% 개선됨. 클린룸 확대와 조립, 포장 설비 개선으로 청정도와 품질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포장 불량률 또한 40% 개선. 단순 증설을 넘어 생산성, 품질, 원가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구조적 개선이라는 점에 유의미

2026년, 해외 성장, 공장 효율화와 맞물리며 2026년 재도약 기대

2026 매출액은 2,124억원(YoY +29.5%), 영업이익은 297억원(YoY +194.2%) 예상. UNICON 등 신제품 확대와 디지털 솔루션 강화, 해외 전략 국가 중심 영업 확대가 주요 성장 동력. 여기에 올해 진행된 공장 효율화가 본격 반영되면, 매출 증가는 곧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2026년은 해외 시장 활대와 체질 개선으로 실적 정상화를 통한 재도약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억원, 원 , %)

	2023A	2024A	2025A	2026F	2027F
매출액	1,558	1,196	1,124	2,124	2,630
영업이익	209	-407	52	297	513
세전순이익	104	-505	-3	238	410
총당기순이익	26	-413	-3	238	410
지배지분순이익	33	-413	-3	238	410
EPS	209	-2,657	-19	1,654	2,854
PER	107.4	NA	NA	10.7	6.2
BPS	12,242	13,126	13,443	14,989	17,843
PBR	1.5	1.4	1.3	1.2	1.0
ROE	1.8	-20.7	-0.1	11.0	16.0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디오,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